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른 연금저축 활성화 논의

오승연 연구위원

유럽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그동안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증가하고 있음. 전통적인 자영업자와 달리 플랫폼 경제 종사자와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나 홀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자발적 자영업자(Involuntary Self-Employment)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 자영업자와 비자발적 자영업자는 노후준비의 장애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음.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금저축(Retirement Saving)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¹⁾의 등장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그동안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²⁾
 - 네덜란드는 자영업 비중이 15.7%로 지난 10년간 OECD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크게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³⁾
- 전통적인 자영업자⁴⁾와 구분되는 소위 비자발적 자영업자(Involuntary Self-Employment)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유연화와 비용 감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나 홀로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여기에 포함됨⁵⁾

■ 최근 크게 증가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은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수 있음

1)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도 포함하는 개념임
 2) Fondeville et. al(2015)
 3) OECD(2018a)
 4)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직된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고소득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사업체 운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영업자를 말함
 5) Kautonen et. al(2009)

- European Social Insurance Platform(2017)은 12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연금제도 포함 여부 등을 분석하였음
 -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제도화되어있는 국가는 절반에 그쳤고,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연금제도에 포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함
 -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2017)는 영국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가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함
 -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자동가입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고, 고용주로부터 연간 300~400파운드 정도의 연금저축을 보조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나 연금상품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자영업자 내 이질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영업자의 연금가입률이나 적립액 규모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또한 소득확인이 어려워 적절한 수준의 연금저축을 강제하기 쉽지 않음
 -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특성이 다른 자영업자의 연금저축을 증가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 영국의 자동가입제도 시행 후 탈퇴율(Opt-Out Rate)이 낮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45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자동가입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⁶⁾
- Karpowicz(2019)는 종사상지위에 따른 연금저축의 심리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위험회피성향이 낮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남⁷⁾
- 보험료가 높지만 보장된 연금급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는 낮지만 연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하는 연금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는 두 번째를 선호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보다 높아 투자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은 연금자산을 스스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함
 - 연금운용을 펀드에 맡기겠다고 답변한 비중이 근로자는 65%에 이르는 반면, 자영업자는 30%에 불과했음

6) The Pension Policy Institute(2017)

7) 이 연구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가구설문조사(Dutch National Bank household survey: DHS)를 분석한 결과임

■ 자영업자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⁸⁾

- Gouveia(2017)와 van Dalen and Henkes(2017)는 연금에 관한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Dabhi et. al(2018)은 유럽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자영업자의 연금저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서도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전체 자영업 인구 중 순수하게 자영업에서만 소득을 얻는 비중은 62%이고, 나머지는 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이나 플랫폼 경제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정적 소득흐름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중·고령층은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가, 청년층은 저축할 여유는 있으나 당장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또한 안정된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 모두 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이 연금 가입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저소득층인 대부분의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경우는 현금유동성이 낮은 것과 노후 준비의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금저축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정적 소득흐름을 가진 자영업자에게는 연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자산 운용에 자기 결정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에서 종사한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연금제도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ri](#)

8) Karpowicz(2019)

참고문헌



-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2017), *To gig or not to gig? Stories from the modern economy*, London: CIPD
- Dabhi, Krishna, Yasmin White, Jayesh Shah, Stephen Finlay and Sarah Tipping(2018), “The drivers of saving behaviour for retirement among the self-employed”, *HM Revenue and Customs Research Report*, 513, Ipsos MORI Social Research Institute
- European Social Insurance Platform(2017. 3), “Statutory Pension Insurance of Digital Platform Workers - a comparative perspective”, ESIP Technical Paper
- Fondeville, Nicole, Erhan Ozdemir, Orsolya Lelkes, and Terry Ward, “Recent changes in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cross the EU“, European Commission Social Situation Monitor
- Gouveia, Ana F.,(2017), “Political support for reforms of the pension system: two experiment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Vol. 16, No. 03, pp. 371~394
- Karpowicz, Izabela(2019), “Self-Employment and Support for The Dutch Pension Reform”, IMF Working Paper
- Kautonen, Teemu, Simon Down, Friederike Welter, Pekka Vainio, Jenni Palmroos, Kai Althoff, Susanne Kolb(2010), “Involuntary self-employment as a public policy issue: a cross-country European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Vol. 16 No. 2, pp. 112~129
- OECD(2018a), *OECD Economic Surveys: The Netherlands 2018*,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18b), *OECD Pensions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 The Pension Policy Institute (2017), *The impact of automatic enrolment in the UK as at 2016*
- van Dalen, H. P., and K. Henkens(2017), “Do People Really Want Freedom of Choice? Assessing Preferences of Pension Fund Participants”, *Netspar Academic Series*, DP 09/2017-016, Netspar, The Netherlands